



대전하나시터즌 선수들이 1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1' 9라운드 홈경기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1' 9라운드 홈경기에서 충남 아산과 1-1로 비겼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후반전 반격 불구 아쉬운 1-1 대전하나, 2경기 연속 무승

아산전 시즌 첫 무승부...선두 자리 내줘

K리그2(2부) 대전하나시터즌이 시즌 첫 무승부를 기록했다. 대전하나나는 1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1' 9라운드 홈경기에서 충남 아산과 1-1로 비겼다.

아쉬운 90분이었다. 연패는 피했으나 대전하나나는 5승 1무3패, 승점 16으로 정규리그 1라운드 로빈(팀당 9경기)을 선두로 마치지 못했다. 4연승을 질주하던 아산 그리너스와 8라운드에서 0-1로 패했던 대전하나나는 2경기 연속 승수를 쌓지 못했다.

경기 전 대전하나 이민성 감독은 연승이 꺾인 원인을 공격적인 팀 컬러에서 찾았다. "너무 공격에 치중했다. 경기 운영의 미스"라고 자평했다. 뒷문을 단단히 한 뒤 역습을 노린다는 점에서 아산과 아산은 비슷하다.

그러나 대전하나나는 패인을 바꾸지 않았다. 2연패 중인 아산에 맞서 정공법을 택했다. 원 톱 바이어를 중심으로 원 측면에 파투, 공격 2선에 에디뉴를 포진시켜 발톱을 세웠다. 물론 아산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홈팀의 공세를 잘 막고 빠르게 역습했다.

"첫 골이 중요하다. 먼저 실점하면 어려운 경기를 한다"던 박동혁 감독의 의지대로 아산은 전반 39분 김인균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다. 상대 오른쪽 측면에서 대전하나의 패스가 끊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한 번의 유효 슈트도 날리지 못한 채 전반을 마친 대전하나나는 후반전 반격에 나섰다. 파투, 정화웅의 날카로운 슈트로 분위기를 띄웠고 후반 11분 이진현이 문전 오른쪽에서 띄운 프리킥을 이현식이 절묘한 백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계속해서 이어진 공방. 하지만 더 이상의 골은 없었다. 바이어도, 아산 2선 공격수 알렉산드로도 득점에 실패해 승점 1점을 나눠 갖는 데 만족했다. 대전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병역기피' 석현준 프랑스 귀화 추진 외교부 여권무효...현지언론 "프랑스어 배우는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여권이 무효화된 전 축구국가대표 석현준(30·트루아)이 프랑스 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프랑스 매체 레스트 에클레르르의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석현준이 프랑스 국적 취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선 프랑스에서 3년간 거주해야 한다. 석현준은 이 조건을 이미 충족시켰다. 국적 신청을 넘어 취득을 위한 자격(거주기간 5년) 조건은 2022년에 충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2부리그 트루아에 속한 석현준은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병무청의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올라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석현준에 대해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다. 외교부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때에는 석현준이 비슷한 연배의 손흥민(29·토트넘), 황의조(29·보르도)와 달리 병역특례를 받지 못한 점도 언급했다. 레스트 에클레르르는 "석현준은 짧은 몇 주의 기초 군사훈련으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없다. 손흥민과 황의조는 2018지카르타-팔렘방아시아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특례를 받았으나, 석현준은 당시 대표팀에서 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레스트 에클레르르는 "(프랑스 귀화를 위해) 석현준은 프랑스어를 구사해야 한다. 이 점이 그에게 걸림돌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외교 기자 stop@donga.com

일류첸코 동점골...전북 '무패 선두'

김보경 패스 골로 연결...3번째 합작 주민주부상 제주 빠른 역습 인상적 남기일 감독 "잔물축구 이미지 지웠다"

| 프로축구 경기결과 | ▶ 4월30일~5월2일 |
|-----------|---------------|
| 상암 | 서울 2 : 2 성남 |
| 수원종합 | 수원FC 2 : 4 대구 |
| 수원 | 수원 1 : 1 포항 |
| 울산 | 울산 2 : 0 광주 |
| 전주 | 전북 1 : 1 제주 |
| 인천 | 인천 1 : 0 강원 |

K리그1(1부) 5연패를 노리는 전북 현대도, 3위권 이상을 넘보는 제주 유나이티드도 전혀 여유가 없었다.

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13라운드에서 만난 두 팀은 최대치의 성과를 내야 했다.

시즌 개막 후 12경기 무패(8승4무)로 선두를 질주한 전북은 재차 추격에 시동을 건 2위 울산 현대가 신경 쓰였다. 울산(7승4무2패·승점 25)이 전날(1일) 광주FC를 홈에서 2-0으로 제압했기 때문이다.

제주 역시 승점이 필요했다. 12라운드까지 승점 19(4승7무1패)를 쌓은 제주에도 '추격자'가 따라붙었다. 전날 1-1로 비긴 수원 삼성과 포항 스틸러스, 수원FC를 4-2로 격파한 대구FC가 모두 승점 19 고지를 밟았기 때문이다.

양 팀 통틀어 30회 가까운 슈트를 주고 받은 난타전의 최종 결과는 1-1 무승부. 결과적으로는 모두 웃지 못했지만, 차이는 있었다.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를 찍은 전북은 8승5무, 승점 29로 울산과 격차를 벌리지 못한 반면 제주는 라이벌



전북 현대 일류첸코(오른쪽 끝)와 구스타보(오른쪽 2번째)가 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하나원큐 K리그1 2021' 13라운드 홈경기 도중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과 공중볼을 다투고 있다. 전북과 제주는 1-1로 비겼다. 사진제공 | 전북 현대

들을 근소하게 앞섰다. 원정팀이 불리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했다. 5골을 기록한 골잡이 주민주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주 원정에 불참해서

백승호 "수원과 긴밀한 소통 못해 죄송"

전북 이적 후 처음으로 입장 밝혀 "많은 잡음,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

K리그1(1부) 전북 현대 유니폼을 입은 백승호(24)가 입단 후 처음 입을 열었다.

백승호는 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 13라운드 홈경기(1-1 무)를 마친 뒤 공식 인터뷰를 했다. FC바르셀로나(스페인) 유학자금을 지원한 수원 삼성과 갈등을 빚은 끝에 겨울이적시장 막바지인 3월 전북으로

옮긴 백승호는 이날 전반 32분 중앙 미드필더로 교체 투입됐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으나 날카로운 연계 플레이로 무난한 적응을 알린 그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 소감은? "많은 잡음이 있었다. 책임감을 갖고 있다. 심리를 거쳐 죄송하다. 유스 시절, 도움을 주신 수원에 감사하다. 그 덕에 FC바르셀로나에서 뭘 수 있었다. K리그 이적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을 하지



백승호

못해 죄송하다. 절민고 영입해준 전북 구단에도 감사하다. 이번 일로 실망했을 팬들에게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것이다." -전북에서 3경기를 소화했다. "K리그는 압박이 정말 강하다. 쉽지 않다. 빨리 적응해야 한다. 베테랑 팀 선배들을 따라 좋은 경기력을 보여야 한다." -중앙 미드필더로 주로 나서는데? "4-4-2, 4-3-3 포메이션의 중앙을 편하게 생각하는 건 맞지만 어느 역할을 맡든 제 몫을 해야 한다."

-전북의 팀 분위기는 어떤가? "모든 선배들이 먼저 어린 선수들을 많이 도와주려 한다.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미가 있다. 최대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되, 수비 시 주변과 많이 소통하라는 주문을 받는다."

-도쿄올림픽 출전 의지가 있다면? "아직 몸 상태는 100%가 아니다. 최대한 빨리 올리는 과정이다. 도쿄올림픽은 모든 선수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걸려있다."

-박지성 어드바이저의 메시지가 있었나? "이적 과정 초기 K리그 의사를 직접(박 어드바이저가) 확인하셨다. 전북은 K리그 최고 클럽이다. 정말 오고 싶었다." 전주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김도혁 결승골...인천, 강원 잡고 9위 도약

송시우 AS...3경기 연속 무패행진 강원 고구려·임채민 교통사고 공백

2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13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강원FC전에 앞서 강원 김보경 감독의 얼굴은 어두웠다. 교통사고로 제외된 선수들 때문이다.

수비의 핵 임채민과 주축 공격수 고구려이 이날 엔트리에서 빠졌다. 이들은 12라운드(4월 24일) 전북 현대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구단에 따르면, 여주행하던 읍주운전 차량에 고구려이 붙던 차가 사고를 당했다. 등승한 임채민도 함께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김 감독은 "두 선수는 안정을

취하고 있다. 특히 임채민은 무릎 부상이 있어 복귀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인천 조성환 감독은 "현재 부상자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선수뿐 아니라 국내선수 모두 잘해준다"며 "개막을 앞두고 부상 선수 최소화가 목표였는데, 지금 그런 상태"라고 만족해했다. 최근 1승1무로 분위기도 좋다.

특히 조 감독은 설욕을 다짐했다. 인천은 6라운드에서 강원에게 0-2로 졌다. 당시 강원은 시즌 첫 승을 거두며 반전에 성공했고, 인천은 강원전 포함 5경기 동안 무승(1무4패)의 부진에 빠졌다. 조 감독은 "선제 실점만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골은 쉽게 나지 않았다. 인천은 상대의 측면을 뚫지 못했다. 왼쪽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지만 강원 수비의 강했다. 제대로 된 슈팅도 없었다. 강원은 가운데를 공략했다. 마사가 상대 수비진의 배후 공간을 노렸다. 전반 2차례 슈팅도 나왔다. 하지만 골과는 거리가 멀었다.

인천은 후반 시작과 함께 송시우와 김도혁을 투입했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송시우의 돌파가 먹혀들었다. 김도혁의 스피드도 돋보였다. 이들은 후반 13분 선제 결승골을 합작했다. 송시우가 미드필드 오른쪽에서 길게 크로스한 볼을 김도혁이 반대편에서 잡아 강력한 원발 슈트로 골문을 갈랐다. 이 한 방으로 승부는 갈렸다. 강원은 추격전을 벌였지만 인천 골키퍼 이태희의



인천 유나이티드 김도혁(왼쪽)이 2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강원FC와 홈경기 후반 13분 선제 결승골을 터트린 뒤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인천 | 김민철 기자 marineboy@donga.com

선방에 번번이 막혔다. 1-0으로 승리한 인천은 3경기 연속 무패(2승1무)와 함께 11위에서 9위(승점 14)로 도약했다. 인천 | 최희길 기자 choihg2@donga.com